

*반주음원QR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박정관



1.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 내 삼 형 성 이 름 다 와 - 라
2. 우 리 의 모 양 중 에 임 하 셴 하 내 삼 영 광



주 귀 한 주 의 재 녀 댔 으 니 사 랑 하 며 섬 기 리
주 귀 한 왕 이 여 기 계 시 니

Copyright (C) 박정관 . Used by Permission



암송구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 40:38)

트랙터 가정예배 일지

일 시	참석자
기도제목 응답내용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촌교회

트랙터 가정예배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출애굽기 40:34~38)



1 함께 찬양하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 383장)

1)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 하시네

*반주음원QR



2)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 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 하시리 아멘

2 함께 본문 읽기

출애굽기 40:34-38

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
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
으며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
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3 함께 생각하기 인도자가 읽어줍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David Livingstone)은 검은 대륙이라 불리던 아프리카를 횡단한 최초의 유럽 탐험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탐험가이기 이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 수여식에 앞서 리빙스톤은 자신의 경험담을 학생들에게 연설하였습니다.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였던 이야기,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하여 원주민들이 노예로 팔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을 해방시켰던 이야기, 양 무리를 덫치던 사자를 쫓아내려다 왼팔을 물려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야기, 말라리아와 페렴으로 태어난 지 6주 만에 죽었던 딸 엘리자베스의 이야기 등 그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견뎌내도록 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리빙스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비결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었을 뿐입니다.”

리빙스톤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믿었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4 함께 관찰하기 성경 본문을 보며 빈칸을 채웁니다

① 모세가 □□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이 회막 위에 덮이고 □□□□ □□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② 낮에는 □□□□ □□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 □□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5 함께 나눠보기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 ②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시며 율법을 주셨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결혼과 많이 닮았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20~23장에서 그 만남에 대하여 언약서가 낭독되었으며, 24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부터 설명하는 성막은 결혼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될 신방과 같은 처소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성막은 울타리를 세우고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쌌는데 이는 바깥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문은 동쪽 하나뿐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오직 하나뿐임을 알려줍니다. 뜰에는 죄사함을 의미하는 번제단과, 정결을 의미하는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에는 진리의 빛을 밝히는 등잔대, 생명의 떡인 진설병을 놓는 진설병상,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상징인 언약궤(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3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둘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영적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6 함께 기도하기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